

“경찰국 신설 철회”...전남 전·현직경찰 반발

독재시대 치안본부 회귀 권력중속 직장협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퇴직한 전임 경찰들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삭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열고 “행안부는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됐다”며 “이후 지난 31년 동안 경찰권의 행사 범위는 역대 정부 때마다 조정이 있긴 했지만,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 발령내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반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각지 발생했다”며 “또한, 행안부장관이 치안감감을 대폭 물갈이한 이유로 전 정권과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편협한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에서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전남경찰청 경우회 등이 7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소속 경찰국 설치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행안부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

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측화로 이어질 것이다”며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들

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시설과장에 행정직 발령

광주시교육청은 7일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주요 인사는 현경식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사진)가 3급으로 승진해 정식으로 관장을 맡고, 정영미 총무과 인사 담당이 4급으로 승진해 교육협력관에 보임됐다.

4급 전보는 김정연 교육협력관이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으로, 김용일 재정복지과장이 노동정책과장으로, 노정환 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정은남 노동정책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각각 옮겼다.

또한 양규현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자치과장에, 임창호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이 재정복지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5급 전보는 오근배 시설기획 담당이 교육시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교육행정직인 오사무관이 교육시설과장을 맡은 것은 1986년 시교육청 개청 후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시설과장은 기술직이 맡아왔었다. 이에 따라 오 사무관은 다음 인사 때 4급 승진이 유력시된다.

정은남 신입 총무과장은 교육청 개청 후 3번째 여성 총무과장이다. 또한 4급 승진자 1명을 두고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환식 부교감) 결정에 대해 교육감 결재가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근평(근무평정 성적) 1순위보다는 뒷순위라도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환준 기자

옛 광주적십자병원 3D퍼즐 제작 5·18기념재단, 교육자료 활용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모티프로 한 3D 입체퍼즐을 제작했다.

7일 5·18기념재단은 따르면 3D 입체퍼즐은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5·18민주화운동 심화 이해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2019년 첫 번째 시리즈 ‘옛 전남도청’이 제일 먼저 나왔으며 2020년 두 번째 시리즈 ‘5·18민주광장과 금남로’가 제작됐다.

올해 세 번째 시리즈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적십자병원의 모습과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구현했다.

3D 입체퍼즐 시리즈(옛 광주적십자병원,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오월 학교홈페이지’(edu.518.org) ‘자료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재민 기자

김대중 도교육감 인수위 활동 ‘지속’ ... 교육정책은 ‘아직’

출범 일주일... 집행부 기본업무만 방학 앞두고 일선 학교들도 혼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지 일 주일이 되고 있지만,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지속 되고 있어 집행부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이 나오지 않아 기본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인수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 인수위는 지난달 13일 출범해 오는 22일까지 활동하고 30일께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책을 결정에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수장 취임 후 최대한 달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인수위 활동은 취임과 동시에 종료되고 집행부는 전달받은 정책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지 않아 집행부가 기본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이번 달 말 방학을 앞두고 있어 ‘방학 중 학생 돌봄계획’ ‘저소득층 급식 지원’ ‘코로나 19 방역 계획’ 등을 교육감의 정책을 반영해 예산을 수립해야 하지만 방향이 나오지 않아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선 학교 또한 김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김학주 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수위 활동 기간은 취임 이후 30일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김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수정·보완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과 교육청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지표 및 시책, 공약실현 방안 등에 대한 ‘제1차 교육감 보고회’를 개최했다.

8일 오후 2시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는 분청 직원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바,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시외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 (7/19)</p>
<p>010-6670-9800 (062-382-5500)</p>		